

한부모 가계의 자산과 부채 상태: 남성가구주와 여성가구주 가계의 차이*

Assets and liabilities in single-parent households: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headed households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 수 고 선 강**

Sungshin Women's Univ. Dept. of Social Welfare
Professor Koh, Sun-Kang

〈목 차〉

I. 서론	IV. 결과 및 해석
II. 선행 연구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 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levels of assets and debts that male- and female-headed households have in comparison to married-couple households. Toward this end, a series of analyses of data from the 2011 Korean Household Finance Survey on the assets and debts of single-parent households are conducted. The empirical results reveal that the amounts of assets and net worth of married-couple households were significantly larger than those of male- and female-headed households. A comparison between male- and female-headed households show that the latter were more likely to hold financial assets such as savings accounts, savings insurance and mutual funds. The amounts of assets of female-headed households were significantly larger than those of male-headed households. Furthermore, the amount of credit card debt in male-headed households was significantly larger than that in female-headed households.

* 본 논문은 2011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본 논문은 2012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원고를 기초로 수정 보완한 것임

** 주저자, 교신저자: 고선강(skoh@sungshin.ac.kr)

Key Words : 한부모 가계(single-parent headed household), 자산(asset), 부채(liability), 경제자원(economic resource), 여성가구주 가구(female-headed household), 남성가구주 가구(male-headed household)

I. 서론

최근 10년 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구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와 2005-2030 장래가구추계를 분석한 통계청(2013)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약 9.3%인 1,677천 가구가 한부모 가구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되는 저소득 한부모 가구가 217천 가구로 전체 한부모 가구의 약 13%를 차지하였다. 2012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비율이 약 4.6%인 것과 비교하면(보건복지부, 2013),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연구들은 대다수가 빈곤의 여성화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즉 대부분의 한부모 가구의 가구주는 여성이며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족으로 전이하는 시기에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은 급격한 소득 감소를 경험하게 되어 빈곤에 쉽게 노출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전반적으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교육수준, 평균임금이 여성보다 높기 때문에 여성한부모가 남성한부모보다 더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연구의 대다수는 여성가구주 가계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홍백의·김혜연, 2007; 고은주·김진옥, 2009; 이성립, 2004; 광민주·이희숙, 2003; 진미정·김은정, 2005).

그러나 한부모 가계에 관한 통계자료를 살펴 보면 남성한부모 가계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한부모 가계의 약 1/5이 부자가족임을 알 수 있

다. 2005년에 우리나라 전체 한부모 가계에서 남성한부모 가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20.9%였는데, 2012년에는 22.2%로 증가하였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한 이연주·김승권(2011)의 연구에 의하면 12세 이하 아동의 부모와 동거 상태를 분석한 결과 약 2.2%의 아동이 한부모 아버지와 동거하고, 2.7%의 아동이 한부모 어머니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자가정의 비율이 모자가정의 약 80%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절대적인 한부모 가계의 수에서 여성한부모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남성한부모 가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부자가정은 경제적 어려움 보다는 자녀양육의 어려움, 시간부족, 가사노동의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여성한부모 가계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의 몇몇 연구들은 남성한부모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에 주목하였고, 어려움의 차이는 있으나 남성가구주 가계도 경제적 어려움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지적한 연구들도 있다(배다영·진미정, 2011; 옥선화·성미애, 2004).

한 가계의 경제상태를 파악할 때 현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소득과 부의 축적 정도를 알 수 있는 자산을 평가한다. 빈곤이나 당장의 곤궁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공공부조 프로그램이나 소득지원 정책들이 존재한다. 반면 가계의 경제적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가계 소득이 급감하거나 상실되는 위기 극복에는 자산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Keister, 2000).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경제적 측면에서 가계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과 더불어 가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구성원들의 미래 설계와 계획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다(Sherraden, 1991). 또한 가계의 자산 수준이 높을수록 간접적으로 가족의 스트레스를 낮춘다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 보유는 가계 구성원의 자존감을 높이거나 아동의 성장발달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Sherraden, 1991; Rothwell & Han, 2010). 소득이 현재의 소비와 관련이 있는 것과는 달리 자산은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미래의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자산은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경제적 상태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서 자산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자산의 보유가 가져오는 부수적인 긍정적 효과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 가계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일정한 경제적 가치의 실물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주택의 보유가 가족구성원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해주고, 자존감을 높이고, 아동의 삶의 만족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난다면, 자기 집이 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동과 자기 집이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동에게 단순히 경제적 수준 차이 이상의 격차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몇몇 실증연구들은 저소득층 가계의 자산 보유가 가계의 요구 수준을 낮추고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거나, 한부모 가계 자녀의 대학진학이나 교육수준에 중요한 영향요인을 밝히고 있다(Rothwell & Han, 2010; Han, Huang, & Garfinkel, 2003). 한부모 가계의 자산 보유도 경제적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과 더불어 그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긍정적 효과들의 관점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반면 부채는 가계의 경제수준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가계에서는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부채를 활용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소득 부족을 보충하거나 자영업 등의 생계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채를 진다(김학주, 2006; 백은영, 2012). 따라서 부채의 위험성은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더 커지는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비교했을 때 부채의 규모는 고소득층이 크지만 가계소득 대비 부채상환액을 비교해보면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난다(김학주, 2006). 저소득층의 경우 이자율이 높은 제 2 금융권이나 사채 등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 같은 원금에 대해서도 고소득층 보다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대출의 목적이 생활자금이나 생계를 위한 사업목적(소규모 자영업)이기 때문에 부채는 이들의 기본적인 생계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백은영, 2012).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나타나는 한부모 가계의 경우 부채는 경제적 복지와 생활유지를 위한 경제적 자원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가족자원경영학 관점에서 한부모 가계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한부모 가계의 가족자원을 세부영역 별로 분석한 연구들로 시간자원과 여가관리(조영희, 2004; 윤소영, 2013), 사회적 자원과 삶의 질(서지원, 2013), 저소득 여성한부모 가계를 대상으로 한 정책 경험(강기정·박수선, 2013), 여성한부모 가계의 경제자원관리(이성림, 2004) 등이 있고, 포괄적 자원관리 관점의 연구(손진분·박미려, 2007; 노정자·강기정, 2012)가 있다.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의 연구가 한부모 가계의 건강한 가족자원관리를 확산하고 한부모 가계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자원관리의 각각의 하위영역에 관한 연구들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자원관리는 건강한 가정의 토대가 되는 물질자원의 기초요소(조희금 외, 2010)로서 중요하다. 다수의 한부모 가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려하면 한부모 가계의 경제자원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부모 가계의 경제자원에 관한 연구들은 대

다수가 경제적 취약성에 초점을 두고 이를 가계 소득, 빈곤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대부분 여성 한부모 가계를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한부모 가계와 양부모 가계를 비교한 연구들이고(이성림, 2004; 박민주·이희숙, 2003; 김진옥, 2010; 진미정·김은정, 2005), 소득 중심의 연구들이 대부분이다(김승권 외, 2001; 김미숙 외, 2005; 홍백의·김혜연, 2007; 고은주·김진옥, 2009).

한부모 가계의 경제자원에 관한 연구들의 대다수는 빈곤과 빈곤감소를 위한 공공부조의 효과에 관한 것들이다. 빈곤을 정의할 때 주로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계의 경제자원 평가에서, 소득 중심의 논의를 벗어나기 힘든 문제점이 있다. 또한 한부모 가계, 특히 여성한부모 가계의 경제적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선행연구들의 한부모 가계 경제자원 분석에 저소득 여성가구주 가계를 대상으로 한 한계를 갖는다. 소득 중심의 분석과 저소득층에 한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한부모 가계를 포함하는 연구와 남성한부모 가계가 분석의 중심이 되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부모 가계의 경제자원을 자산과 부채의 측면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저소득층 여성한부모 가계의 소득과 빈곤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저소득층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한부모 가계의 경제자원을 자산과 부채를 중심으로 연구하되 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 주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한부모 가계와 양부모 가계의 자산과 부채 상태의 차이가 있는지, 한부모 가계의 경제적 취약성이 자산과 부채 상태에서도 발견되는가를 살펴본다. 둘째, 한부모 가계 안에서 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자산과 부채 상태의 차이를 분석한다. 선행연구들은 여성한부모 가계의 경우 남성가구주와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함을 소득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는데, 이를 자산과 부채를 중심으로 비교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부모 가계의 자산과

부채 수준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가구주의 성별이 자산과 부채 수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본 연구는 일반적인 한부모 가계의 경제자원을 자산과 부채를 중심으로 연구함으로써 한부모 가계의 건강한 경제자원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한부모 가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II. 선행 연구

한부모 가계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선행 연구가 적어서 한부모 가계의 일반적인 경제자원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1. 한부모 가계의 경제 상태

한부모 가계가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가 경제적 어려움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저소득 한부모 가계, 경제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한부모 가계, 여성가장가계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계층과 관계없이 사별이나 이혼으로 한부모가 되는 것 그 자체는 경제자원 수준의 급격한 하락을 의미한다. Hanson, McLanahan과 Thomson(1998)는 미국의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 (NSFH) 자료를 활용하여 이혼 후 경제자원의 감소로 가계의 경제적 복지수준이 급속히 나빠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연구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제한하지 않고 일반적인 이혼을 경험한 가계를 포함하였다. 가계의 경제자원 수준을 가계소득, 주택소유, 정책적으로 설정된 빈곤선 이하에 해당되는가로 측정하였다. 이들은 양부모 가계와 이혼을 경험한 한부모 가계의 경제자원을 비교하기 위하여 종단적 연구 자료를 활용하였다. 첫

번째 측정 시점에서 이혼 전에는 이들 두 집단의 경제자원 수준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6년 뒤의 두 번째 측정시점에서는 이혼을 한 집단의 경우 가계소득, 생활표준, 주택소유의 측면에서 급격한 하락을 보였다. 이들은 이혼의 과정이 어떠한가(원만하거나, 어렵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혼 자체가 가계의 경제적 위축을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즉 한부모 가계가 되는 것 자체가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가계의 경제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 한부모의 경제상태에 관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한부모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 수 있다. 통계청(2013)의 장래인구추계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07년과 2012년에 한부모 가구의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87%, 9.3%로 0.43%p 증가하였다.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인 한부모 가구의 비율은 10.1%에서 13%로 2.9%p 증가하여, 한부모 가구의 증가율보다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한 한부모의 정의는 경제적으로 저소득층에 해당되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조건에 부합하는 한부모의 비율도 5년 사이 전체 가구 대비 4.49%에서 7.78%로 변화하여 3.28%p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우리나라 한부모 가구의 경제적 취약성이 더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성별 요인

우리나라에서 저소득 한부모 가계가 아닌 일반적인 한부모 가계를 대상으로 경제자원을 연구한 논문들은 많지 않다. 그중에서도 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경제자원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들(이성림, 2004; 광민주·이희숙, 2003; 김진욱, 2010; 이연주·김승권, 2011; 배다영·진미정, 2011)을 중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한부모 가계의 경제상태를 양부모 가계와 비교한 이성림(2004)의 연구는 여성한부모 가계와 양부모 가계의 소득, 지출, 빈곤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여성한부모 가계와 양부모 가계의 소득을 비교한 결과 양부모 가계의 소득이 더 높았고,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한 환산소득과 환산지출의 경우 여성한부모 가계의 소득이 조금은 상승하였으나 양부모 가계에 비하여 낮았다. 이 연구에서는 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를 빈곤으로 정의하고 빈곤율을 계산하였는데, 여성한부모 가계의 빈곤율은 약 48%, 양부모 가계의 빈곤율은 11~15% 사이로 나타나 여성한부모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빈곤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빈곤갭을 살펴본 결과 여성한부모 빈곤가계의 소득대비 빈곤갭이 61%, 양부모 가계의 빈곤갭이 33~47%로 나타나 여성한부모 빈곤가계의 빈곤 정도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민주·이희숙(2003)은 여성한부모 가계와 양부모 가계의 경제상태를 소득, 지출, 자산 등의 단순저량과 가계채무비율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여성한부모 가계의 소득과 소비수준을 연간 소득과 지출, 1인당 소득과 지출로 비교한 결과 양부모 가계의 소득과 소비수준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의 측면에서도 총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실물자산 모두 양부모 가계가 높았으며, 총부채, 금융기관 부채, 돌려줄 전세 보증금에서 양부모 가계가 높았다. 채무비율에서 소득대비 소비비율의 준거기준에 만족하는 가계의 비율은 여성한부모 가계에서 낮았다. 부채부담 비율에서는 실물자산(예, 주택)을 처분하여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은 여성한부모 가계에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축적 비율에서도 준거기준을 만족시키는 여성한부모 가계의 비율이 양부모 가계의 비율보다 유의미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진욱(2010)은 2003년~2008년까지의 가계조사자료를 활용하여 한부모 가구의 빈곤추이와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빈곤선을 최저생계비 기준과 균등화된 중위소득 50%를 사용하였는데, 한부모 가구의 빈곤율은 20~30% 정도로 양부모 가구의 3~3.5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빈곤여부를 결정하는 변인으로 한부모 가구, 양부모 가구 모두 가구주의 성별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의 형태에 관계없이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빈곤선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더 높았다. 빈곤갭(가구소득과 빈곤선과의 차이의 크기)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양부모 가구 표본에서 여성가구주인 경우 빈곤갭이 커지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한부모 가구 표본에서는 가구주의 성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부모 가계에서 빈곤에 들어가는가의 여부는 여성한부모가 더 취약하지만, 빈곤의 깊이를 심화시키는 데는 가구주의 성별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연주·김승권(2011)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편부, 편모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이혼한 편모, 편부 가구의 경제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변수(예, 소득, 자산)를 분석하지는 않았으나, 소득의 대리변수로 활용되는 교육수준, 고용상태, 직업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편모의 학력보다 편부의 학력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 지위에 있어서 편모가 편부보다 무직의 비율은 높고, 노동직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중인 경우만을 비교한 결과는 사무직의 비율은 편모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즉 편부의 낮은 교육수준은 좋은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상황과 연관되어 결국에는 낮은 소득과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다. 편부는 고용의 측면에서는 편모보다 우세하지만, 직업의 내용면에 있어서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는 편부가 우세하다고 볼 수 없다.

배다영·진미정(2011)은 한국복지패널 2006년 자료를 활용하여 한부모의 성별 및 가구구성에 따른 경제적 여건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경제적 여건을 소득 대 욕구의 비율, 빈곤선 층위, 소득규모, 물질적 곤궁 경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유형으로 살펴보았는데, 소득 대 욕구 비율은 가구의 총소득을 가구원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로 나눈 비율로서 한부모 가구의 총소득은 최저생계비 보다 1.3-1.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여유롭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부모의 성별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하지 못했다. 빈곤선을 기준으로 소득분포를 비교한 결과에서 한부모 아버지가 한부모 어머니보다 빈곤계층에 들어가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한부모 아버지, 한부모 어머니 모두 3세대 가구가 아닌 단독가구를 유지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비율이 높았다.

미국의 한부모 가계 경제자원에 관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여성한부모 가계의 경제적 취약성을 설명하는 연구들이 대다수였다(Han, Huang, & Garfinkel, 2003) 최근 Baker와 Mutchler(2010)는 미국의 2001 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SIPP) 자료를 분석하여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양부모 가정의 빈곤과 물질적 곤궁에 관해 연구하였다. 가정의 구성에 따라 빈곤가정으로 분류될 확률을 분석한 결과, 양부모 가정과 비교하여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또는 3세대 가정 모두 빈곤가정으로 분류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러나 자녀의 연령, 인종, 교육수준 등의 변인들을 통제한 후에는 단순히 한부모 가정의 효과는 사라지고 여성한부모 가장인 경우 빈곤가정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았다. 즉 가정의 가장이 여성한부모인 경우 다른 형태의 가정과 비교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zawa와 Lee(2006)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가장 가계의 순자산이 부부 가계, 남성가장 가계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들은 미국의 1998 Survey of Consumer Finances(SCF) 자료를 분석하여 자산과 부채의 보유정도와 액수를 비교하였다. 여러 종류의 자산을 보유한 비율을 비교한 결과, 여성가장 가계는 모든 종류의 자산과 부채의 보유율이 남성가장 가계, 부부 가계와 비교하여 낮았고, 자산과 부채의 액수도 낮았다. 가계의 순자산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소득, 교육수준 등을 통제한 후에도 가계의 구조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여성가장 가계와 비교하여 부부 가계, 남성가장 가계로 분류되는 경우 순자산의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미국 사회에서 남성한부모 가계와 비교하여 여성한부모 가계의 경제적 취약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3. 기타 관련 요인

한부모 가계를 대상으로 자산과 부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찾기 힘들어 일반 가계의 자산과 부채 수준 관련 변인을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하였다. 먼저 자산 수준에는 소득과 교육수준이 중요한 관련이 있다. 단순히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자산의 규모가 커지는 것뿐 아니라 저소득 가계가 중상위소득 가계보다 저축률이 낮다고 보고되었다(Dynan, Skinner, & Seldes, 2000; Ozawa & Lee, 2006). 가구주의 교육수준도 자산 수준과 정적인 관계를 보인다. 교육수준은 때로는 소득의 대리변수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교육수준이 인적자본의 축적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Land, 1996). 한부모 가계와 양부모 가계의 순자산에 관하여 연구한 Ozawa와 Lee (2006)는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인 사람과 비교

했을 때, 대학졸업자의 순자산 규모가 더 크며,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산축적 수준이 높고, 전일제 근로자와 비교하여 시간제 근로자, 무직자의 순자산 규모가 더 크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시간제 근로자나 무직자의 순자산 규모가 큰 이유를 자산 분포의 극단적인 편포(매우 적은 수의 사람들이 보유한 자산의 규모가 매우 큰)에서 찾았다. 무직자나 시간제 근로자 중에는 전일제 근로를 할 수 없어서 근로소득이 적고 자산 수준도 매우 적은 사람들과 자산 수준이 매우 높아서 근로소득을 창출할 필요가 없는 양 극단의 사람들이 모두 포함된다. 자산 규모가 매우 큰 사람들이 소수일지라도 그 크기가 매우 커서 무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의 자산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였다.

부채 수준과 관련 있는 변인들로 소득, 교육수준, 연령, 가구원수는 부채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 여성보다 부채 수준이 높고, 가구주의 고용상태가 무직인 경우보다 상용직 근로자, 자영업자인 경우 부채 규모가 더 크며, 가구주가 이혼이나 사별 상태인 경우 부채 수준이 더 높다고 한다(Baek & Hong, 2004; 김학주, 2005; 성영애, 2006; 김우영·김현정, 2010; 백은영, 2012). 소득 대비지출은 지출이 소득보다 더 큰 적자가계의 경우 부채를 부담할 확률이 높고, 고소득층의 경우 지출이 소득보다 적은 흑자가계를 유지할 경우 부채를 부담할 확률이 낮았다(백은영, 2012).

III.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들을 설정하였다.

1. 한부모 가계의 자산과 부채 상태는 어떠한가? 양부모 가계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가?
2. 남성한부모 가계와 여성한부모 가계의 자산과 부채 상태의 차이는 어떠한가?
3. 한부모 가계의 자산과 부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연구 대상 및 표본

본 연구는 가구주 연령 20세에서 65세 사이의 한부모 가계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가계의 경제자원을 연구하는 방법 중 하나로 자산과 부채 상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11년 가계금융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1년 가계금융조사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통계청이 2010년에 전국 가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로서 대상 가계들의 자산 상태와 부채 상태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2011년 가계금융조사는 총 10517 가계를 포함하며, 이 중에서 가구주 연령 20세-65세 사이, 가구주의 혼인상태가 유배우, 이혼, 사별인 7370가구의 자료를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7370가구 중 가구주가 이혼 또는 사별인 경우를 한부모 가계¹⁾로 정의하였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양부모 가계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표본 중 한부모 가계는 1071가구, 양부모 가계는 6299가구이다. 분석단위는 가계이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연구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자산과 부채이다. 한부모 가계의 자산과 부채 수준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회귀모형에는 종속변수로 총자산과 총부채를 사용하였다. 총자산은 금융자산(저축액, 전월세보증금)과 실물자산의 세부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이를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금융자산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적립식 저축, 적립식 펀드, 저축성보험, 예치식 저축, 예치식 펀드, 주식, 채권, 기타(선물, 옵션 등), 빌려준 돈, 갯돈불입금, 전월세보증금의 총합이다. 실물자산은 소유한 부동산 평가액(거주주택, 비거주주택, 계약금, 중도금 등)과 자동차, 회원권 등의 기타 실물자산의 가치를 합산한 것이다. 총부채는 금융부채(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대출, 외상 및 할부미상환액), 기타 부채(계 단 후에 불입해야 하는 금액), 임대보증금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총자산과 총부채의 편포가 심하여 회귀모형의 가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모형에 투입할 때는 로그를 취하여 변환하였다.

회귀모형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가계의 경제상태를 알 수 있는 변수들을 분석하였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의미한다. 소득은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으로 측정하였다. 경상소득은 가계의 세금 납부 전 연간소득으로 측정하였고, 가처분소득은 가계의 세금 납부 후 연간소득으로 측정하였다. 소득대비 가계지출은 조사대상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가계지출이 소득보다 많은 경우를 적자가계, 가계지출이 소득보다 적은 경우를 흑자가계, 가계지출과 소득이 비슷한 경우의 3집단으로 나누고, 각각을 가변수화하여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은 성별은 남성은 0, 여성은 1로 코딩하였고, 연령은 만나이를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대학교 중

1) 본 연구에서 한부모 가계로 분류된 경우에 이혼 또는 사별의 상태이나 자녀가 없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분석 자료에 함께 거주하는 자녀 유무에 관한 정보는 있으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자녀의 정보가 없어 해당가계의 자녀 유무를 파악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의 경우 자녀가 가구원으로 조사되지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 한부모의 경우 자녀가 가구원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퇴 및 졸업 이상의 3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각을 가변수로 만들어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고용상태는 상용직 근로자, 임시직·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무직, 기타(보험판매, 택배기사 등)로 구분하였고, 각각을 가변수로 만들어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가구원 수는 조사대상 가계에 함께 거주하는 사람의 수로 측정하였다.

4. 분석방법

자산과 부채 상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제시하였으며, 집단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증, 독립표본 t-test를 사용하였다. 한부모 가계의 자산과 부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총자산과 총부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5. 조사 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전체 7,370가계 중 한부모 가계가 1,071가계, 양부모 가계가 6,299가계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성비를 보면 한부모 가계는 남성가구주의 비율이 33.3%이고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66.7%인데, 양부모 가계는 남성가구주 비율이 95.3, 여성가구주 비율이 4.7%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계는 여성가구주가 약 2/3를 차지한 것과 달리 양부모 가계는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은 평균 47.1세이고, 한부모 가계 가구주의 연령 평균은 50.8세, 양부모 가계 가구주의 연령은 46.5세로 한부모 가계의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더 높았다. 교육수준의 경우 한부모 가계와 양부모 가계를 비교하면, 중학교 졸업 이하의 비

<표 1> 조사 대상자의 특성

변수		전체 (n=7370)		한부모 가계 (n=1071)		양부모 가계 (n=6299)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6361	86.3	357	33.3	6004	95.3
	여성	1009	13.7	714	66.7	295	4.7
연령		47.1	9.4	50.8	7.8	46.5	3.7
교육수준	중졸이하	1309	17.8	422	39.4	887	14.1
	고등학교 중퇴/졸업	2797	38.0	462	43.1	2335	37.1
	대학 중퇴 이상	3264	44.3	187	17.5	3077	48.8
고용상태	상용근로자	3408	46.2	214	20.0	3194	50.7
	임시직·일용직	1086	14.7	364	34.0	722	11.5
	자영업자	2080	28.2	209	19.5	1871	29.7
	무직	683	9.3	261	24.4	422	6.7
	기타	113	1.5	23	2.1	90	1.4
가구원 수		3.5	1.1	2.2	1.0	3.7	1.0
혼인 상태	유배우자	6299	85.5	0	0	6299	100
	이혼	712	9.7	712	66.5	0	0
	사별	359	4.9	359	33.5	0	0

율이 한부모 가계는 39.4%, 양부모 가계의 가구주는 14.1%로 나타났다. 반면 대학 중퇴 이상의 고학력 비율은 양부모 가계가 48.8%로 나타나 한부모 가계의 17.5% 보다 월등히 높았다. 전반적으로 한부모 가계의 가구주의 학력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고용상태를 보면 상용근로자 비율은 양부모 가계에서, 임시직·일용직, 무직의 비율은 한부모 가계에서 높았다. 가구원수는 한부모 가계에서 평균 2.2명, 양부모 가계에서 평균 3.7명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계 중 66.5%는 이혼에 의한 한부모이고, 33.5%는 사별에 의한 한부모로 나타나, 이혼에 의한 한부모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IV. 결과 및 해석

1. 한부모 가계와 양부모 가계의 자산 및 부채 비교

<표 2>는 조사대상 가계의 자산 및 부채 보유 비율과 보유액을 제시한 것이다. 연구 표본의 양부모 가계와 한부모 가계의 자산 및 부채 보유율을 살펴보면, <표 2>에 제시된 적립식 금융자산, 목돈투자, 실물자산의 보유비율이 양부모 가계에서 한부모 가계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예치식 저축과 부동산 보유비율에서 양부모 가계의 보유비율이 한부모 가계의 보유비율보다 약 2배 정도로 나타나 매우 큰 차이를 알 수 있다. 부채도 전반적인 신용카드 관련 대출과 기타 부채를 제외하면, 양부모 가계의 부채 보유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양부모 가계의 부채 보유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들을 살펴보면 담보대출, 신용대출과 같이 보유한 실물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등급이 높은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종류들이다. 즉 양부모 가계는 기본적인 자산을 형성하여 이를 기초로 대출을

받는 경향이 높은 반면, 한부모 가계는 신용카드 대출이나 기타 대출처럼 담보나 개인 신용에 크게 제한 받지 않는 대출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담보 대출이나, 신용 대출과 비교해 보면, 신용카드 대출과 기타 대출의 이자율이 높아 한부모 가계가 부채를 유지하는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부채 내용을 분석한 백은영(2012)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다.

한부모 가계와 양부모 가계의 자산 수준을 살펴보면, 자산 보유율 패턴과 유사하게 양부모 가계의 자산 수준이 한부모 가계와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계의 평균 총자산은 15,552만원이었고, 양부모 가계의 평균 총자산은 38,604만원으로 한부모 가계의 총자산 수준의 약 2배를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득수준도 양부모 가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부모 가계의 평균소득은 약 2,394만원이고, 양부모 가계의 평균소득은 약 5,432만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이 높고, 자산 수준이 높은 경우 부채 수준도 높아진다는 김학주(2005)와 성영애(2006)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다.

자산 보유율과 보유액을 비교한 결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보유비율은 두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보유액은 양부모 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의 경우 경제자원을 축적하는 자산의 의미 보다는 소득의 흐름을 관리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의 공공부조 급여 등도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을 통해 지급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가계에서 이 저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유액에서는 양부모 가계의 보유액이 높은 것으로 보아 한부모 가계의 경제적 취약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전월세 보증금의 한부모 가계 보유

〈표 2〉 한부모 가계와 양부모 가계의 자산 및 부채 보유율과 수준 비교

보유율(%)	전체 (n=7370)	한부모 가계 (n=1071)	양부모 가계 (n=6299)	χ^2	
금융자산					
적립식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97.3	96.8	97.4	1.07	
적립식 저축	43.2	28.9	45.6	103.24***	
적립식 펀드	13.6	5.2	15.0	159.64***	
저축성 보험	80.6	62.9	83.6	250.57***	
목돈투자					
예치식 저축	22.7	13.2	24.3	64.77***	
예치식 펀드	5.3	2.7	5.7	16.83***	
주식	13.0	4.9	14.4	71.98***	
채권	0.4	0.1	0.5	2.66	
기타저축	17.8	14.1	18.4	11.74***	
전월세 보증금	37.3	52.9	34.6	131.09***	
실물자산					
부동산	68.8	43.6	73.1	371.30***	
거주주택	57.3	35.8	60.9	236.97***	
거주주택 외 부동산	33.6	18.6	36.1	126.23***	
기타실물자산	84.1	53.7	89.3	865.11***	
자동차	76.9	38.4	83.4	1042.83***	
부채					
금융부채	66.9	55.2	68.9	77.21***	
담보대출	43.5	28.6	46.1	113.84***	
신용대출	28.4	21.6	29.6	28.86***	
신용카드관련대출	8.6	9.6	8.4	1.78	
외상 및 할부	24.5	18.0	25.6	28.48***	
기타부채	0.9	0.9	0.9	.01	
임대보증금	18.8	12.1	20.0	36.62***	
보유액(만원)	한부모 가계 (n=1071)		양부모 가계 (n=6299)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총자산	15552.62	27906.79	38604.65	56214.338	20.80***
금융자산	4292.88	9475.88	9464.37	16534.27	14.50***
저축	2824.19	8548.32	6866.56	14296.52	12.74***
적립식 금융자산	1470.70	4725.15	3892.00	6550.284	14.56***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360.15	1033.37	998.99	4038.69	10.68***
적립식 저축	222.72	1032.62	551.80	1982.558	8.17***
적립식 펀드	46.60	352.527	202.50	942.918	9.72***
저축성 보험	841.23	3595.27	2138.71	3301.194	11.04***
목돈투자	988.30	5729.19	2295.84	9840.02	6.10***
기타저축	365.18	2057.19	678.73	3654.73	4.02***
전월세 보증금	1468.70	3192.75	2597.81	6272.69	8.99***
실물자산	11259.74	23701.92	29140.28	49141.93	18.77***
부동산	10855.76	23333.64	27730.21	48060.62	18.04***
기타실물자산	403.98	892.18	1410.07	3356.35	20.00***
총부채	3579.41	16678.16	7038.78	16678.15	6.35***
순자산	11973.20	28844.21	31565.87	49321.02	18.17***
경상소득	2394.89	2671.55	5432.27	5260.87	28.88***

*** $p < .01$

비율은 52.9%, 양부모 가계 보유비율은 34.6%로 한부모 가계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보유액은 양부모 가계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도 한부모 가계의 주거 취약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한부모 가계의 자산 및 부채: 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비교

<표 3>은 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한부모 가계의 자산 및 부채 보유율과 수준을 비교한 것이다. 먼저 자산 보유율을 살펴보면, 남성가구주 가계와 여성가구주 가계의 자산 보유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항목들은 적립식 저축, 저축성 보험, 예치식 펀드, 자동차 소유였다. 적립식 저축은 남성가구주 가계에서 22.7%의 보유율을, 여성가구주 가계에서 32.1%의 보유율을 나타냈고, 저축성 보험은 남성가구주 가계에서 48.7%, 여성가구주 가계에서 70%의 보유율을 보였다. 보유율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항목 중 저축성 보험의 보유율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예치식 펀드의 경우 한부모 가계의 보유율 자체가 2.7%로 매우 낮았으나, 여성가구주 가계의 보유율이 3.8%, 남성가구주 가계의 보유율이 0.6%로 나타났다. 전월세 보증금의 보유율도 여성가구주 가계가 높았는데, 실물자산 중 자동차 보유율은 남성가구주 가계에서 52.1%, 여성가구주 가계에서 31.5%로 나타났다. 남성한부모의 자동차 보유율이 높은 것은 자동차를 활용한 소득활동을 남성들이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부채 항목 중에는 외상 및 할부를 하고 있는 비율이 남성가구주 보다 여성가구주 가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자산 수준의 항목들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적립식 저축이었다. 입출금이 자

유로운 저축은 남성가구주 가계에서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적립식 저축은 여성가구주 가계의 보유금액이 더 높았다. 남성가구주 가계는 일정 금액을 장기간 모아서 미래를 위한 자산 형성을 하려는 노력보다 현재의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언제든지 찾아서 쓸 수 있도록 보관하는데 더 비중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부채 수준에서 성별 차이를 나타낸 항목은 신용카드 관련 대출이었다. 신용카드 관련 대출에서 남성가구주 가계의 평균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신용카드 관련 대출은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다른 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종자돈의 의미 보다는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의 부족분을 급하게 보충하거나 다른 부채 상환을 위한 임시방편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높다(백은영, 2012). 따라서 남성가구주 가계의 부채 문제가 여성가구주 가계보다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총자산과 총부채는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순자산의 경우 남성가구주 가계보다 여성가구주 가계의 순자산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소득은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모두 남성가구주 가계가 더 높았다.

<표 4> <표 5> <표 6>은 소득 수준이 유사한 집단에서 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한부모 가계의 자산 및 부채 수준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조사 대상 가계들을 소득수준에 따라 각 33.3%씩 나누어 상, 중, 하 3개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소득 하위집단의 경우 남성가구주 보다 여성가구주 가계의 총자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았다. 저축 항목을 보면 적립식 펀드, 저축성 보험에서 여성가구주 가계의 보유 수준이 높았다. 여성가구주 가계가 목돈으로 투자하는 규모와 실물자산의 규모에서도 더 컸다. 부채 중에는 신용카드 관련 대출에서 남녀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가구주 가계가 여성가구주 가계보다 신용카드 관련 대출의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

〈표 3〉 한부모 가계의 자산 및 부채 보유율과 자산 수준: 가구주 성별에 따른 차이

보유율(%)	한부모 가계 (n=1071)	남성가구주 (n=357)	여성가구주 (n=714)	χ^2	
금융자산					
적립식	98.2	97.2	98.7	3.24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96.8	95.8	97.3	1.83	
적립식 저축	28.9	22.7	32.1	10.19***	
적립식 펀드	5.2	3.9	5.9	1.85	
저축성 보험	62.9	48.7	70	46.23***	
목돈투자					
예치식 저축	13.2	11.2	14.1	1.80	
예치식 펀드	2.7	0.6	3.8	9.37***	
주식	4.9	5.0	4.9	0.01	
채권	0.1	0	0.1		
기타저축	14.1	14.0	14.1	0.01	
전월세보증금	52.9	49.3	54.8	2.85*	
실물자산					
거주주택	35.8	35.3	36.0	0.05	
거주주택 외 부동산	18.6	17.4	19.2	0.52	
자동차	38.4	52.1	31.5	42.65***	
부채					
금융부채	55.2	54.6	55.5	0.07	
담보대출	28.6	27.2	29.3	0.51	
신용대출	21.6	22.4	21.1	0.22	
신용카드관련대출	9.6	11.5	8.7	2.14	
외상 및 할부	18.0	14.0	20.0	5.84*	
기타부채	0.9	0	1.4	5.05**	
임대보증금	12.1	11.2	12.6	.43	
보유액(만원)	남성가구주 (n=357)		여성가구주 (n=714)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총자산	14151.42	27610.68	16252.70	28046.70	-1.16
금융자산	3817.38	8909.12	4530.63	9744.28	-1.16
저축	2707.21	8092.65	2882.67	8772.23	-.32
적립식	1265.01	2138.90	1573.54	5584.83	-1.01
입출금 자유저축	459.13	1268.35	310.66	889.91	1.98**
적립식 저축	161.90	490.84	253.13	1215.37	-1.74*
적립식 펀드	29.01	180.49	55.40	412.31	-1.45
저축성 보험	614.97	1373.18	954.36	4291.15	-1.46
목돈투자	973.49	6632.46	995.71	5224.41	-.06
기타저축	468.71	2976.56	313.42	1385.39	.93
전월세보증금	1110.17	2500.88	1647.96	3475.39	-2.99***
실물자산	10335.06	23667.73	11722.07	23722.05	-.90
총부채	5099.68	27309.72	2819.28	6581.27	1.56
금융부채	4356.79	26638.18	1783.68	4542.03	1.81
담보대출	1769.84	5833.63	1354.00	4004.23	1.21
신용대출	2283.85	26077.03	352.08	1669.66	1.39
신용카드관련대출	248.79	1449.19	52.13	301.76	2.54**
임대보증금	742.89	3700.36	1020.20	3987.41	-1.10
순자산	9052.77	35233.08	13433.42	24946.86	-2.10**
소득					
경상소득	2688.78	2338.98	2247.94	2813.25	2.55**
가치분소득	2236.75	2015.70	1886.61	2646.04	2.20**

* $p < .1$ ** $p < .05$ *** $p < .01$

〈표 4〉 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한부모 가계의 자산 및 부채 상태 비교: 소득 하위 집단

(n=395)

보유액(만원)	남성가구주 (n=115)		여성가구주 (n=280)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총자산	4633.35	9809.02	8295.29	17122.18	-2.66***
금융자산	1738.50	5721.92	2428.31	4175.31	-1.33
저축	1082.07	5056.33	1189.81	3342.92	-.24
적립식	467.29	1384.77	678.24	1273.48	-1.45
입출금 자유저축	220.70	969.66	184.85	663.80	.42
적립식 저축	23.57	106.31	68.30	593.66	-.80
적립식 펀드	1.30	13.98	12.80	98.65	-1.90*
저축성 보험	221.72	835.01	412.28	816.23	-2.09**
목돈투자	106.09	549.68	393.07	2738.49	-1.67*
전월세보증금	656.43	1588.91	1238.50	2012.26	-3.05**
실물자산	2894.84	8015.10	5866.98	16215.37	-2.43**
총부채	5530.86	44800.74	1556.22	4665.03	.94
금융부채	5287.30	44726.95	1225.04	4086.39	.97
담보대출	390.13	1478.38	782.71	3513.29	-1.56
신용대출	4454.52	44743.03	350.23	1995.69	.98
신용카드관련대출	417.12	1800.67	77.89	435.53	2.95***
임대보증금	243.57	1925.74	331.07	1891.84	-.042
순자산	-897.51	45375.99	5530.86	44800.74	-2.49**
소득					
경상소득	731.48	313.78	790.22	316.62	-1.67
가처분소득	632.09	363.11	644.95	431.56	-.28

* $p < .1$ ** $p < .05$ *** $p < .01$

산의 규모도 가구주의 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가구주 가계의 순자산 평균은 -897.51만원으로 평균적으로 자산보다 부채의 규모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여성가구주 가계의 경우 순자산 평균이 5530만원 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남성가구주 가계보다 높았다. 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소득 하위집단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전체 한부모 가계를 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표 3>)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소득 하위집단 여성가구주 가계는 장기적인 적립을 통한 목돈 마련의 노력,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

고 있었다. 이미 축적된 자산(목돈, 실물자산)의 규모도 컸다. 반면 소득 하위집단 남성가구주 가계는 자산 규모에서 여성 가구주 가계보다 적고, 신용카드 부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소득수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사한 소득수준의 저소득층 가계에서 여성한부모 가계보다 남성한부모 가계의 자산과 부채 측면의 경제적 취약성이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소득 수준이 중간 33.3%에 해당하는 집단의 경우 <표 5>를 살펴보면,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의 규모는 남성가구주 가계와 여성가구주 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5〉 가구주의 성에 따른 한부모 가계의 자산 상태 비교: 소득 중위 집단

(n=336)

보유액(만원)	남성가구주 (n=95)		여성가구주 (n=241)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총자산	8578.03	14838.50	10975.72	14213.72	-1.37
금융자산	2509.04	3070.75	3455.64	4091.03	-2.30**
저축	1285.57	2461.26	1782.37	2559.85	-1.61
적립식	764.52	1172.42	1111.10	1320.04	-2.23**
입출금 자유저축	261.23	381.89	242.19	541.10	.31
적립식 저축	119.06	405.91	112.87	300.36	.15
적립식 펀드	3.24	22.31	39.64	326.28	-1.72*
저축성 보험	380.98	937.45	716.40	1050.05	-2.71***
목돈투자	290.53	1592.34	443.57	1607.79	-.78
전월세보증금	1223.47	2080.06	1673.27	2945.38	-1.57
실물자산	6068.99	14061.80	7520.07	13019.31	-.89
총부채	3397.48	11307.94	2228.33	5069.64	.97
금융부채	2989.06	10977.97	1409.24	3141.78	1.38
담보대출	1032.63	3504.63	1055.63	3043.64	-0.06
신용대출	1520.98	10334.54	281.15	798.13	1.17
신용카드관련대출	349.05	1940.45	38.05	176.05	1.56
임대보증금	408.42	1646.38	801.24	3073.19	-1.51
순자산	5180.55	16789.21	8747.39	11348.14	-2.25
소득					
경상소득	1973.00	382.03	1803.34	370.93	3.77***
가처분소득	1693.63	464.20	1540.15	442.80	2.82***

* $p < .1$ ** $p < .05$ *** $p < .01$

그러나 자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융자산에서 여성가구주 가계가 남성가구주 가계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적립식 금융자산의 규모가 더 컸으며, 그 중에서도 적립식 펀드, 저축성 보험에서 여성가구주 한부모 가계의 보유 수준이 남성가구주 가계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소득은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모두 남성 가구주 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 중위 집단의 경우 집단 안에서 남성가구주와 여성가구주의 소득 격차가 있고, 남성가구주 가계의 소득이 더 높으나 자산과 부채의 측면에서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소득이 더 높은 집단의 자산규모가 더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적립식 펀드, 저축성 보험과 같은 미래를 위한 투자는 여성가구주 가계의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났다. 소득 중위 집단의 경우 남성가구주 가계의 소득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소득이 자산 형성 노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 수준 상위 집단의 경우 총자산과 순자산의 규모는 남성가구주 가계보다 여성가구주 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여성가구주 가계는 남성가구주 가계보다 금융자산 중에 적립식 저축과 실물자산이 더 많았다. 소득은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통계적

〈표 6〉 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한부모 가계의 자산 상태 비교: 소득 상위 집단

(n=340)

보유액(만원)	남성가구주 (n=147)		여성가구주 (n=193)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총자산	25201.87	37781.90	34386.54	42246.21	-2.08**
금융자산	6289.24	12297.68	8922.98	16705.15	-1.67
저축	4897.33	11296.11	6712.59	15520.66	-1.20
적립식	2212.54	2684.16	3449.89	10310.92	-1.42
입출금 자유저축	773.56	1710.18	578.67	1354.05	1.14
적립식 저축	297.80	661.59	696.41	2142.06	-2.44**
적립식 펀드	67.35	276.48	136.88	688.81	-1.27
저축성 보험	1073.83	1771.51	2037.93	8022.13	-1.62
목돈투자	2093.44	10160.45	2559.46	9157.51	-.44
전월세보증금	1391.90	3200.48	2210.39	5249.96	-1.78
실물자산	18912.63	32540.42	25463.56	35125.66	-1.76*
총부채	5862.41	12901.14	5389.63	9364.21	.39
금융부채	4512.76	9417.50	3061.70	6142.80	1.62
담보대출	3325.64	8311.18	2555.39	5290.36	1.04
신용대출	1078.71	4542.71	443.33	1937.54	1.59
신용카드관련대출	52.31	311.74	32.33	148.85	.78
임대보증금	1349.66	5301.59	2293.37	6297.18	-1.49
순자산	19339.46	32302.30	28996.92	38381.00	-2.46**
소득					
경상소득	4682.57	2411.55	4917.95	4308.08	-.59
가처분소득	3843.10	2201.65	4120.63	4250.73	-.72

* $p < .1$ ** $p < .05$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3. 한부모 가계의 자산 및 부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른 영향 변인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성가구주 가계와 여성가구주 가계의 자산과 부채 수준을 비교한 결과 총자산, 총부채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비교한 결과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 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한부모 가계의 자산과 부채 수준과 관련이 있는 변인들

을 통제한 후에도 나타나는가를 분석하고자 총자산과 총부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총자산과 총부채의 분포가 심하게 편포되어 있어, 각각에 로그를 취하여 교정한 값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점검한 결과 VIF 값이 모두 2보다 낮게 나왔음을 확인하여, 다중공선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두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두 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적합도를 보였다. 총자산 모형의 수정된 R²이 .31, 총부채 모형의 수정된 R²이 .18로 모형의 설명력은 총자산 모형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총자산 모형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 소득, 교육수준, 고용상태, 소득대비 가계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들로 나타났다. 모형에 포함된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성별은 한부모 가계의 총자산 수준을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구주 가계의 경우 남성가구주 가계와 비교하여 총자산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중·하위 그룹과 비교하여 상위그룹에 속하는 경우,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집단과 비교하여 대학교 중퇴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총자산의 액수가 커지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고용상태는 임시직·일용직 근로자보다는 상용직 근로자의 총자산이 더 많고, 상용직 근로자 보다는 자영업자의 총자산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소득과 지출이 비슷한 가계 보다는 적자가계, 흑자가계의 총자산 수준이 더 높았다.

총부채를 분석한 모형에서는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이 아니었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소득이 중·하위그룹에 속하는 가계와 비교하여 상위그룹에 속하는 경우, 중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와 비교하여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 총부채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고용상태가 상용근로자인 가구주와 비교하여 자영업을 하는 가구주의 부채가 많았으며, 무직자에 비해서는 상용근로자의 부채가 더 많았다. 가계의 소득과 지출이 비슷한 경우 보다 적자가계인 경우 부채 수준이 높았다.

두 모형의 분석결과를 비교해 보면, 한부모 가계의 가구주의 성별은 총자산 수준과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었으나, 총부채와는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가구주의 성별은 총자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소득을 제외하고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즉 가구주의 연령, 소득, 교육수준, 고용상태 등 자산 형성에 유의미한 연관성을 나타낸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가구주의 성별이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냈다는 것은 한부모 가계의 자산형성에 있어서 성차가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성가구주인 경우 자산규모가 더 크다는 것은 남성한부모 가계와 비교하여 여성한부모 가계의 경제적 상태가 취약하거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김진욱, 2010; 이연주·김승권, 2011; 진미정·배다영, 2011)의 결과와는 상이한 것이다. 대다수의 연구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 중심의 경제상태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중상위 소득자를 포함시킨 자산상태에 대한 분석과는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미국의 여성가구주 가계와 남성가구주 가계의 자산과 부채를 분석한 연구(Ozawa & Lee, 2006)에서는 양부모 가계, 남성가구주 가계와 비교하여 여성가구주 가계의 자산 상태가 열악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연구결과는 미국의 한부모 여성가구주와 우리나라의 한부모 여성가구주의 특성의 차이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서구의 경우는 이혼과 함께 대부분 남편이 가정을 떠나고 부인과 자녀가 그동안 살던 집에 남아서 한부모 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나라는 기혼여성의 취업기회가 매우 제한적이고 임금수준이 낮기 때문에 여성가장 한부모 가구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주택가격이 높고, 높은 주거비용도 여성한부모가 독립적인 가구를 형성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된다(이연주·김승권, 2011). 즉 남성가구주와 비교하여 여성가구주의 경우 소득이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독립된 여성가구주로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남성가구주의 관점에서는 한부모로 남아있는 남성가구주의 경우 자산 수준이 낮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들이 재혼을 하기 위해서는 남성에게 요구되는 경제적 능력, 높은 직업지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재혼을 하고, 자산 수준이 낮은 사

〈표 7〉 한부모 가계의 자산과 부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총자산(로그) (n=1071)			총부채(로그) (n=1071)		
	B	S.E.	β	B	S.E.	β
성별						
여성(준거집단: 남성)	.753 ***	.110	.180	.131	.236	.016
연령	.035 ***	.008	.140	.015	.016	.031
가구원수	.058	.055	.031	.379 ***	.117	.104
소득(준거집단: 소득상)						
소득하	-1.977 ***	.148	-.484	-1.261 ***	.319	-.157
소득중	-1.066 ***	.135	-.251	-1.015 ***	.291	-.121
교육수준						
(준거집단: 대학 중퇴 이상)						
중학교 졸업 이하	-.546 ***	.160	-.135	-.804 **	.345	-.101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377 ***	.147	-.095	-.225	.316	-.029
고용상태						
(준거집단: 상용직)						
임시직·일용직	-.411 ***	.150	-.099	-.443	.323	-.054
자영업	.524 ***	.164	.105	1.586 ***	.352	.162
무직	-.200	.169	-.044	-.829 **	.363	-.092
기타	-.056	.365	-.004	.959	.784	.036
소득대비 가계지출						
(준거집단: 소득과 지출이 비슷한 가계)						
적자가계	.419 ***	.119	.099	1.998 ***	.256	.240
흑자가계	.375 ***	.132	.082	.171	.285	.019
상수	6.512 ***	.496		3.056 ***	1.067	
F	36.37***			17.46***		
R2	.31			.18		
수정된 R ²	.30			.17		

p< 0.05 *p< 0.01

람들이 한부모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성가구주 가계와 비교하여 남성가구주 가계의 자산 수준이 낮은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부모 가계의 경제자원을 자산과 부채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한부모 가계와 양부모 가계의 자산과 부채 상태를 비교

하고, 한부모 가계 안에서 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한부모 가계의 자산과 부채 수준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가구주의 성별이 자산과 부채 수준 결정에 어떠한 요소로 작용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과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 가계는 자산의 보유율과 보유 수준에 있어서도 양부모 가계 보다 취약하며, 부채의 보유내용에서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

행연구들이 소득의 측면에서 한부모 가계의 경제적 취약성을 주장한 것과 같이 자산과 부채의 측면에서도 한부모 가계는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부모 가계의 건강한 경제자원관리를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자산을 형성하고 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한부모 가계의 경제적 취약성 극복을 위해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지원 정책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벗어나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가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자산형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부모 가계를 위한 자산형성프로그램과 같은 정책의 도입은 한부모 가계가 경제적 독립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여성한부모 가계가 남성한부모 가계보다 미래를 위한 자산 형성 노력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여성한부모 가계의 적립식 저축과 저축성 보험의 보유율이 높은 것은 남성한부모 가계와 비교하여 소득 수준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한부모 가계와 남성한부모 가계의 경제자원 관리행동의 차이는 한부모 가계를 위한 지원정책에도 가구주의 성에 따른 정책시행 방법의 차이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한부모 가계를 위한 자산형성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여성한부모 가계는 남성한부모 가계보다 적은 유인(incentive)에도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거꾸로 남성한부모 가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유인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중위 소득 집단의 경우 남성한부모 가계의 소득수준이 여성한부모 가계 보다 높았으나, 자산형성의 노력은 여성한부모 가계보다 저조하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계소득이 자산형성을 위한 노력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남성

한부모를 위한 가계경제관리 교육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남성한부모 가계의 자산 보유 수준이 여성한부모 가계 보다 더 낮았다. 소득 수준은 남성한부모 가계가 높았지만, 순자산은 여성한부모 가계가 더 높았다. 또한 가계의 총자산 수준을 결정하는데 가구주의 성별이 유의미한 변인이었고, 여성가구주 가계의 총자산 수준이 남성가구주 가계의 총자산 수준 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경제적 취약성을 판단한다면, 여성한부모 가계가 남성한부모 가계보다 경제적으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남성한부모 가계가 경제적 취약집단으로 보인다. 여성한부모 가계의 경우 전반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 금액도 남성한부모 가계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한부모 가계는 전반적으로 부채 보유 금액이 높고 특히 신용카드 관련 대출 금액의 차이가 여성한부모 가계와 비교하여 매우 유의미하게 높았다. 일반가계를 대상으로 연구한 가계대출의 규모는 가계의 자산 수준이 높을수록 높고, 특히 실물자산은 부채규모에 정적인 영향을, 금융자산은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백은영, 2012; Beak & Hong, 2004)과는 다른 결과이다.

남성한부모 가계의 대출 금액이 전반적으로 높고,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보다는 신용카드 대출의 규모가 큰 것은 금융기관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수준을 결정하도록 한 제도(예, DTI 규제)의 영향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순자산 보유 수준이 남성한부모 가계보다 여성한부모 가계가 더 높게 나온 것이다. 자산 수준이 낮고 부채 수준이 높은 경우, 현재 소득이 높다고 해도 가계의 경제적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 볼 수 있다.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서는 남성한부모 가계가 더 취약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성한부모 가계의 부채의 구체적인 내용, 목

적, 용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현재의 고이율의 대출을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정책을 확대하거나, 스스로 자산형성의 노력(예, 적립식 저축)을 할 때 대출 이율을 낮추어주는 등의 소비성 대출을 줄이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유인들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

넷째, 중위 소득 집단의 경우 남성한부모 가계의 소득이 여성한부모 가계의 소득보다 높았으나, 하위와 상위 소득 집단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에서 여성 한부모 가계의 소득이 남성한부모 가계의 소득 보다 더 낮아서 경제적으로 취약하다고 밝힌 것은 중위 소득 집단에는 적용이 되지만, 하위소득과 상위소득 집단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결과라 볼 수 있다. 특히 하위 소득 집단의 경우 남성한부모 가계의 평균 순자산이 음(-)값으로 나타나 부채부담이 큰 것을 알 수 있었고, 같은 저소득층에서 소득수준의 차이가 없고 부채부담을 더 지고 있는 남성한부모 가계가 경제적으로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계의 경제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적 접근에서 남성한부모 가계도 중점적인 정책대상이 되어야 한다. 정책의 목표는 부채를 줄이고, 미래를 위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나 한부모의 초기 취업에 대한 기업의 인센티브 제공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소득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가계재무관리 교육 및 컨설팅과 부모로서 자녀의 미래를 위한 경제적 준비와 미래에 대한 생활설계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전국 시군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생활교육, 가계재무관리 컨설팅 등을 활성화하여 한부모 가계의 생활능력과 가계재무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실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저소득 남성한부모 가계의 부채 감소와 자산 형성을 함께 할 수 있는 자산형성계획과 같은 정책 프로그램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여성한부모 가계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부각된 반면 남성한부모 가계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 겪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남성한부모 가계가 자산과 부채의 측면에서는 여성한부모 가계보다 열악한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자산의 규모, 자산 형성 행동, 부채의 내용과 규모 등에 있어서는 여성한부모 가계보다 남성한부모 가계에 대한 자산형성과 관리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보다 세심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한부모 가계의 경제자원을 자산과 부채 분석을 통해 연구하였고, 한부모 가계 안에서의 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언급하면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부모 가계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함께 살지 않은 자녀(비양육한부모)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우리사회에 한부모 가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 관해 연구할 수 있는 조사자료들에서 한부모 가계를 정확하게 구분해 낼 수 있는 변수들이 포함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한부모 가계의 자산과 부채를 분석하여 한부모 가계의 자산과 부채 상태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가계재부비율 등을 활용하여 한부모 가계의 경제자원과 경제상태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발표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가족자원경영학의 관점에서 한부모 가정의 건강성 향상을 위한 경제생활관리 실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한부모 가정의 경제생활은 일상적인 가정생활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기 때

문에 전반적인 가정생활관리의 맥락에서 생활설계의 관점으로 한부모 가계의 경제생활관리에 관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실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기초적인 연구들이 필요하며, 앞으로 한부모 가정의 경제생활에 관한 많은 연구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강기정·박수선(2013). 저소득 여성한부모가족 사례관리 실천 경험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1), 39-62.
- 2) 고은주·김진옥(2009). 한부모 가구의 빈곤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6(2), 219-236.
- 3) 광민주·이희숙(2003). 재무비율을 이용한 편모가계의 재정상태 평가.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4(1), 55-71.
- 4) 김미숙·박민정·이상현·홍석표(2000). 저소득 편부모 가족의 생활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5) 김미숙·원영희·이현승·장혜정(2005). 한국의 이혼실태와 이혼가족 지원정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6) 김승권·이태진·김유경·송수진(2001). 최근 가족해체의 실태와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7) 김우영·김현정(2010). 가계부채의 결정요인 분석. 국제경제연구, 26(1), 39-78.
- 8) 김진옥(2010). 한부모 가구의 빈곤과 소득이전: 양부모 가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1), 101-125.
- 9) 김학주(2005). 소득계층별 가계의 부채부담 연구. 사회보장연구, 21(1), 119-147.
- 10) 노정자·강기정(2012). 한부모 이혼 남성의 홀로서기과정.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2), 145-163.
- 11) 배다영·진미정(2011). 한부모의 성별 및 가구구성별 경제적 여건의 차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5), 1-20.
- 12) 백은영(2012). 가계의 부채부담 및 부채문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비교분석. 소비문화연구, 15(3), 119-137.
- 13) 보건복지부(2013). 201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
- 14) 서지원(2013).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자원의 삶의 질에 대한 효과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1), 103-124.
- 15) 손진분·박미려(2007). 한부모 가정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3), 45-65.
- 16) 성영애(2006). 패널자료를 이용한 가계부채변동 관련요인 분석. 소비자학연구, 17(4), 39-60.
- 17) 옥선화·성미애(2004). 빈곤 여성가장의 삶. 서울 : 도서출판 하우.
- 18) 윤소영(2013). 한부모가족의 시간사용과 여가활동 실태분석-행복한 생활을 위한 생활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1), 1-18.
- 19) 이성림(2004). 편모가계 여성가장의 취업 및 가계의 경제상태: 양부모 가계와의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69-179.
- 20) 이연주·김승권(2011).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편부·편모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비교: 이혼 부모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4(2), 17-43.
- 21) 조영희(2004). 한부모가족 부·모의 생활시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39-151.
- 22) 조희금 외(2010). 건강가정론. 서울 : 신정.
- 23) 진미정·김은정(2005). 빈곤 여성가장 가족의 소득구성과 물질적 곤궁 경험. 사회복지연구, 27, 163-188.
- 24) 통계청(2013). 한부모 가족 현황. e-나라지표.
- 25) 홍백의·김혜연(2007). 빈곤의 여성화: 경향

- 및 원인. 한국사회복지학, 59, 125-146.
- 26) Baek, E. & Hong, G.(2004). Effects of family life-cycle stages on consumer debt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5(3), 359-385.
- 27) Baker, L. & Mutchler, J.(2010). Poverty and material hardship in grandparent-headed household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 947-962.
- 28) Dynan, K., Skinner, J. & Zeldes, S.(2000). Do the rich save more?(No. 7906).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29) Han, W., Huang, C. & Garfinkel, I.(2003). The importance of family structure and family income on family's educational expenditure and children's college attendance: Empirical evidence from Taiwan. *Journal of Family Issues*, 24(6), 753-786.
- 30) Hanson, T., McLanahan, S. & Thomson, E. (1998). Windows on divorce: Before and after. *Social Science Research*, 27, 329-349.
- 31) Keister, L. A.(2000). Race and wealth inequality: The impact of racial differences in asset ownership on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wealth. *Social Science Research*, 29, 477-502.
- 32) Land, K.(1996). Wealth accumulation across the adults life course: Stability and change in sociodemographic covariate structures of net worth data in the 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1984-1999. *Social Science Research*, 25, 426-462.
- 33) Ozawa, M. & Lee, Y.(2006). The net worth of female-headed households: A comparison to other types of households. *Family Relations*, 55, 132-145.
- 34) Rothwell, D. & Han, C.(2010).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ssets and family stress among low-income families. *Family Relations*, 59, 396-407.
- 35) Sherraden, M.(1991). *Assets and the poor: a new American welfare policy*. Armonk, NY: M.E. Sharpe.

- 투 고 일 : 2014년 1월 1일
- 심 사 일 : 2014년 1월 9일
- 심사완료일 : 2014년 1월 29일